

사설

‘8만4천법’ 무색해서야

해인사가 어떤 도량인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옮긴 그대로 팔만사천 경판에 담겨 보존하고 있는 법보총합이 아닌가. 더구나 화엄선종의 총합인 동시에 5대 종림의 수사찰이다. 특히 해인강원은 반세기 역사와 전통으로 1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인재양성의 산실이다.

해인사 내부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법보총합이기에 부처님게서 이끄시고 보살님네와 호법신중이 보호하셨는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9월 11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강원을 폐강하기로 결정하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갈등과 불화의 소식이 터져나왔다. 연이어 14일에는 대적광전에서 강원학인들이 해인총림 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집회에 돌입했다. 해인강원 동문회, 전국승가대학교직자협의회, 해인사총림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총회에서는 해인사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수습에 나섰다. 교육원에서도 19일 산하 3개 위원회와 전국승가대 교역자 연석회의를 열어 해인강원 폐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숨겨본 순간 순간들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20일 해인사 방장 혜인스님이 해인총림의 방장 자리와 조계종총회 의장의 사퇴를 표명하고 해인사는 총림산중총진회의가 열리고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비상 수습국면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원로를 중시하는 불교계에서 ‘방장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해인사 내부는 아직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제발 더 이상 스님들의 분규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무아실천적 수행자의 거룩한 모습이 어지러운 세상을 밝혀주고 안정시켜 주는 등불이 되기를 모든 불자는 간절히 염

원하고 있다.

이번 해인사 내분을 계기로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첫째, 해인총림산중총진회의는 어떠한 개인감정이나 문종의식을 떠나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에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해인총림의 전통을 회복하여 수행 가풍을 일신하도록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현실적으로 총림이라는 큰살림을 꾸리기에 비효율적인 점이 나타났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번과 사변이 잘 조화를 이뤄 여법한 총림살림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해인사는 선인·율인·강원의 여법한 수행과 공의에 의한 ‘열린 총림’으로서의 내실을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종파벌의식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인사관리 등 종무행정 전반에서 실질한 수행과 포교와 가람수호가 갖게 되기도는 문종관념이 우선시 여겨지는 풍토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심지어 이해에 따라 문종이동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우려된다.

넷째,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전 종도가 동참하고 국민적인 의지로 해인사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 사찰문화재는 민족의 전통 문화인데도 의식없는 개발과 불질향유에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은폐되고 해산골프장 설립반대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때 해인사에서의 불협화음은 어불성설이다.

원컨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열린마당 해외성지순례

선지식 가르침 배우는 만행정신 가져야

“그대는 서역길이 먼 것을 한탄하나, 나는 동방으로 가는 길 먼 것을 한탄한다. 길은 거칠고 눈은 산마루에 쌓였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의 때가 우글거린다. 새는 깎아지른 멧부리가 아슬아슬하다. 평생에 눈물 한번 뿌려본 적이 없건만, 오늘은 천줄이나 비오듯 하는구나.”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스님의 시구절이다. 혜초스님의 행적을 살펴 보면 순례의 길이 아니라 환란한 구도

**현진** (청주 관음사 총무)

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옛 스님들은 불적순례를 구법(求法)의 원력으로 삼았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순례자의 노래에는 신심과 수행이 담겨 있었다. 절집안의 전통은 여행이 아니라 만행의 정신이다. 공부를 점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운수(雲水)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해외여행객의 숫자가 부쩍 많아지고 있지만 순례의 목적은 아닌듯 싶

다. 유람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경경하듯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만 안된다.

스님네가 만행길을 나설 때 걸말 하나만 챙기듯, 여행하는 이는 배낭 하나만 짊어라. 그것은 가방에 채워서 돌아오는 여행이 아닌 배워서 점검하는 게 합당한 여로(旅路)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설 때마다 혜초스님 현장 스님을 친절한 안내자로 삼는다면 어떨까.

역사·문화등 미리 알고 출발...과소비 조심

부처님의 체취가 어린 곳이나 불교 유적들 그리고 불교가 성행한 나라를 여행한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성지순례 길을 함께 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성지순례를 단순한 해외관광여행으로 착각하거나 불교 고리나 현지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순례보다는 쇼핑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요란스러운 과소비여

**리선형** (조계종 삼일포교사)

행군에 포함시키고 싶다. 스님이나 어른들에게 노자돈 드리는 건 잘 보고 오셔서 좋은 법문 들려주시는 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성지순례를 단순한 해외관광여행으로 착각하거나 불교 고리나 현지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순례보다는 쇼핑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요란스러운 과소비여

행군에 포함시키고 싶다. 스님이나 어른들에게 노자돈 드리는 건 잘 보고 오셔서 좋은 법문 들려주시는 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성지순례를 단순한 해외관광여행으로 착각하거나 불교 고리나 현지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순례보다는 쇼핑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요란스러운 과소비여

향락·눈요기여행 탈피 佛法체험 계기로

이번 가을엔 태국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불교국가의 여러 볼거리를 돌아볼 계획으로 초행길인 나로선 하루하루가 손꼽아 기다려진다. 하지만 걱정도 뒤따른다. 너나 할 것 없이 추가때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돼 버려 경제가 어려움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의화남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 지금 무엇을 위해 떠나 왔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목표의식 없이 그저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박지현** (서울 병생선원 신도)

이러저리 둘러다니기 일쑤라고들 하는데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신청한 나 도 본의아니게 그 무리에 휩쓸려 그저 눈요기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백(?)이 있기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만으로는 수박겉핥기식 여행이 될 것이 눈에 선한 일이다.

여행을 다녀와서 며칠만 지나면 거

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저기같은 착각이 들고, 그곳이 뭐하는 곳이었으며 어떤 역사가 숨쉬고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 여행문화의 현주소는 아닌가라고 걱정한다 기우일까.

또한 성지순례를 떠난 여행객들이 성지순례한다는 감격스러움도 잊은채 버스, 호텔을 가리지 않고 고스름, 술판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여행의 맛을 잃고 있는 나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따라 과소비 역시 만만치 않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금년에도 국제선 항공예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스님들의 해외여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성지순례의 현황과 바람직한 자세를 듣는다. <편집자 주>



◇해외성지순례가 지친 과소비 관광여행이 되는 수가 있어 불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태국 방콕의 왕궁사원.

10월은 부처님의 땅 인도 불교성지순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다. 이는 계절의 변화가 심한 인도가 10월부터 3월까지 대기가 건조하고 맑아 청명한 날씨가 계속돼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도·동남아 등지의 해외성지순례 현황

성지순례 코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숫자는 연간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여행사들은 집계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는 사찰이며 신행단체, 소모임 등도 많이 가고 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숫자는 연간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여행사들은 집계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는 사찰이며 신행단체, 소모임 등도 많이 가고 있다.

연간 3천여명 인도·중국 등지 '발길' 대부분 사찰위주로... 8박9일 '선호'

해외불교성지순례는 89년 해외여행자유화정책을 시작으로 1인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들 성지순례단이 주로 찾는 곳은 인도의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루시나카라의 4대성지와 네팔이 대표적 코스로 꼽히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며 근본불교와 불교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순례단이 찾는 불교국가도 광범해지고 있다. 인도 네팔 외에도 미얀마(파간탈 군), 캄보디아(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중국(구화산) 등이 새로운 불교

부분이 재가불자이고 스님은 전체 여행자 수의 10% 정도 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기간은 8~9일 정도이고 경비는 인원이나 경유지 숙박 등이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약 1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행사측은 밝히고 있다.

해외여행의 붐에 따라 호황을 맞고 있는 성지순례가 자칫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과소비 관광여행이 되는 수가 있다. 올바른 성지순례를 위해서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여행사들의 각성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만평



방장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목어

“취나물과 파, 부엌칼집이 텅그라니 남아있을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친척들은 심장이 약한 어머니 김치심(60)씨에게는 아들의 사랑 소식조차 알리지 못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2일 강릉시 칠성산 계곡에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 숨진 강릉경찰서 순경 장영철의 고향표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강상범이 남긴 가족사랑 편지는 남은 이

들의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했다.

“1월 휴가때 어머니 이마와 눈가에 진 주름이 많이 늘어 가슴 아팠다. 나가는 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누가 자식같은 그 어머니

**국화꽃을 바치는 마음**

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던 말인가.

21일 전사한 이병희중사도 이번 추석에 어머니에게 가스레인 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효자가 다. 6개월 후 약혼녀와 결혼해 부모님을 편히 모시겠다고 군복무

를 1년 연장한 검은 베레모의 전사예 우리는 그저 목어 메일 뿐이다.

청중명령 아래 풍년을 구가하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이처럼 민족의 비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병사들의 영전에 국화꽃을 바치자.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무장공비가 타고 온 좌초된 잠수함, 초비상 사태의 공비수색 실전을 ‘분단국의 현실 바로보기’ 교훈으로 삼자.

분단국의 주인임을 자각한다면 복록을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 해외에 나가서 우물대는 과소비 등은 응답할 수 없는 허세다.

야산 숲에 널브러져 있는 무장공비의 시체 회편을 보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대북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늘 깨어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자.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남의 말 사실여부 살펴야

친구를 얻는 말은 인해 버려서는 안된다. 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니나아움)

**협찬** 과천 보광사 대웅 일통 TEL. (02) 502-2262

웃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웃을 입는가” 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에서 자연스러운 웃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에복의 집 Sun Shine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 공방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